

한일전에 중국 vs 홍콩, 12월 부산이 축구로 뜨겁다

8번째 EAFF 챔피언십 열려...역대 3번째 국내 개최

남자부 한·중·일·홍콩, 여자부 한·중·일·대만 참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축구 이벤트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8번째 대회가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린다.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과 일본(남녀부), 중국과 홍콩(남자부) 등의 대결이 성사돼 더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EAFF 사무국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9 EAFF E-1 챔피언십 키오프'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개요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수 EAFF 사무총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및 대회운영본부장, 파울루 벤투 한국 남자대표팀 감독, 폴린 벨 한국 여자대표팀 감독이 참가했다.

EAFF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에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이 참가하고 여자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자웅을 겨룬다. 애초 여자부에는 북한이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EAFF 측은 일단 북한이 참가하지 않게 된 과정부터 전했다.

박용수 EAFF 사무총장은

"EAFF 사무국은 지난 5월 20일 각국에 참가 의향서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북한축구협회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말한 뒤 "그러다 지난 9월 중순 북한축구협회가 EAFF 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와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특별한 불참 사유 없이 '참가 의향 없다' 정도만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공문을 받고도 EAFF 측은 계속 북한을 설득했다. 박 총장은 "지난 15일 평양서 열린 남북맞대결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북한축구협회 관계자를 만나 다시 참가를 요구했다. AFC를 통해 마지막까지 북한 여자팀 참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일방적인 통보였으나 연맹 차원의 제재는 가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용수 사무총장은 "'남과 북민의 대결이 아니라 국제대회이기에 희망을 가졌으나 최종적으로 불참이 결정돼 아쉽다'면서도 '북한축구협회도 자신들만의 뜻대로 불참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 연맹 차원의 패널티를 부여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북한은 참가하지 않으나 관심을

끄는 매치업이 꽤 많다. 기본적으로 남녀부에서 모두 한일전이 펼쳐진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한일전은 1경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회에서 성사되는 한일전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다. 부임 후 처음으로 한일전에 임하는 벤투 감독도 남다른 각오를 피력했다.

벤투 감독은 "한일전의 의미를 안다. 그 어느 경기보다 치열한 라이벌전이니 진중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FIFA 캘린더에 들어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전력을 꾸릴 수는 없으나 변명 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특히 한일전은 이 대회 최종전이다. 1, 2차전을 잘 치른 뒤 한일전까지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여자축구대표팀의 폴린 벨 신임 감독은 이번 대회가 데뷔전이기도 하다. 벨 감독은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나의 첫 대회이자 첫 경기가 될 것"이라면서 "상대팀이 특히 흥미롭다. 일본과 중국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월에 열린 올림픽 최종예선을 앞두고 있기에 더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키오프 기자회견에서 박용수 EAFF 사무총장(왼쪽부터)과 파울루 벤투 남자축구대표팀 감독, 폴린 벨 여자축구대표팀 감독,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전 뿐 아니다. 시위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홍콩의 축구 대결이 펼쳐진다는 것도 주목을 요한다. 한 대회 관계자는 "지금 양상은 중국과 홍콩의 대결이 더 '총성 없는 전쟁'에 가깝다. 적어도 두 팀 국민들에게는 한일전 이상의 뜨거움을 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명보 대회운영본부장은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에 맞춰 대한축

구협회가 이번 대회를 주관하게 된다. 대회 개막이 4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KFA와 EAFF는 최선을 다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최고의 축재라고 생각한다. 축구 팬들이 부산에서 함께 이 축재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팬들의 성원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로 한국

은 2005년을 포함해 3번째 동아시아 연맹 개최국이 됐다. 부산이 개최 도시이고 경기장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과 부산구덕운동장이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2연패를 포함해 통산 4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국인 한국 남자대표팀은 3연패를 노린다. 한국에서 열린 지난 2005년 유일하게 정상을 경험했던 여자대표팀도 홈 팬들의 성원을 빌관 삼아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박병호 1루? DH?...프리미어12서 한국시리즈 부진 씻어낼까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에 1루수가 전문인 선수는 박병호(키움) 한 명 뿐이다. 한국시리즈에서 종아리 통증을 느낀 박병호가 1루수로 나선 수 없다면 대책이 필요하다. 프리미어12를 앞둔 대표팀은 내달 1일과 2일 푸에르토리코와 2차례 평가전을 치른다. 이후 6일부터는 호주로 시작으로 캐나다, 쿠바와 차례로 C 조 예선 라운드를 시작한다. 대표팀은 지난 11일 처음 소집

돼 프리미어12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려왔다. 지난주 막을 내린 한국시리즈에 출전했던 두산과 키움 선수들도 29일 함께 훈련을 소화하며 완전체가 됐다. 대회까지 일주일 남겨둔 가운데 대표팀 타선의 중심이 되어야 할 박병호의 몸상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타선의 핵인 박병호가 한국시리즈에서 종아리 통증으로 컨디션에 이상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박병호의 몸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병호가 1루수로 출전하기 어렵다면 대체 자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표팀에는 박병호를 제외하면 전문 1루수는 없지만 수비에서 1루를 맡아 줄 수 있는 자원들은 있다. 박병호의 상태가 수비까지 나갈 수 없는 상태라면 김현수(LG, 황재균(KT))이 1루 수비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는 LG에서도 1루수를 맡은 경험이 많고 황재균은 내야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29일 상무와 연습경기에는 황재균이 선발 1루수로 출전했다.

수비가 어려울 경우 박병호는 지명타자로 대표팀 타선에 기여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33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른 박병호는 대표팀이 가진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에서 부진했던 박병호의 경기력도 주목해야 한다. 박병호는 SK와의 플레이오프에서 타율 0.182(11타수 2안타) 1타점, 두산과의 한국시리즈에서 타율 0.250(16타수 4안타) 2타점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LG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는 홈런 3방을 때려내며 뜨거웠지만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에서는 단 1개의 홈런도 기록하지 못했다. 박병호의 타격감이 올라와야 한국의 프리미어12 전망도 밝아질 수 있다.



명품하는 행복의조반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